

23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바벨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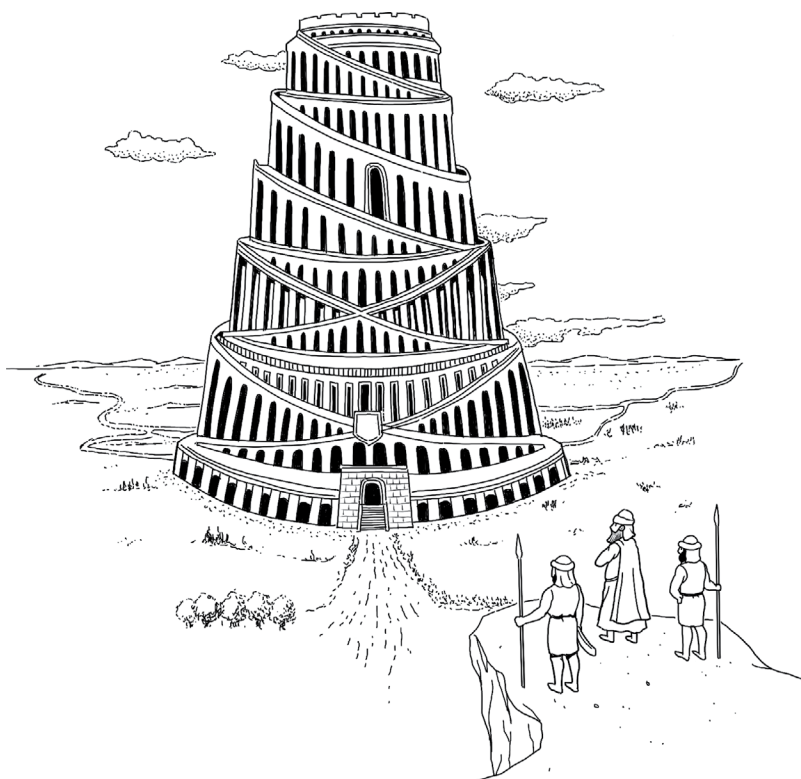
창 11장

은혜찬송 195장 (주님 한 분밖에는), 찬양 11장 (예수 이름 높이세)

오늘 배울



1. 하나님 없이 인간을 높이고, 인간끼리 하나 되려는 노력은 잘못임을 압니다.
2. 하나님께 범죄하면 축복을 상실하게 되지만 순종하면 다시 축복을 얻을 수 있음을 압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창 11:3~4)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렸으되 하나님이 를 물리치시고 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약 4:6)



을 이해하기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수천 가지의 언어와 다양한 인종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언어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진화의 산물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즉 동물적인 피성에서 점점 발전하여 문법체계를 갖춘 세련된 말로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며 원래 세상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물론 인종도 하나였지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의 언어와 인종이라는 큰 축복을 악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이로 인해 언어와 족속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사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니므롯’이라는 인간을 중심으로 연합하였습니다. “땅에 편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시날 평지를 중심으로 큰 성과 도시를 건설하여 흠어지지 않고자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고 외쳤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성을 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인류의 잘못된 노력은 좌절되고 그들은 흠어져 교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족속들과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을 불순종 때문에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족속이 다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잠 16:5)

Everyone proud in heart is an abomination to the LORD; Though they join forces, none will go unpunished. (Pr 16:5)

-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②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 말씀하십니까?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① 바벨탑을 쌓았던 곳은 어디입니까(창 11:2~4)?
- ②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 또는 바벨로니아는 바벨이라는 말에서 유래 되었습니다. ‘바벨’은 무슨 뜻일까요? 또한 이 말의 의미와 같이 바벨탑 사건 이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적어봅시다(창 11:1~9).

바벨의 뜻	
바벨탑 사건 이후의 변화	

3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창 9:7, 창 11:3~4, 잠 16:18)?

4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교만이었 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교만하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시 10:17, 잠 29:23, 빌 2:3, 벰전 5:5)?

5

지난 나의 생활 중에 교만한 말이나 행동을 생각나는 대로 적어봅시다.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시 10:4

월

잠 16:18

화

잠 18:12

↑

마 11:29

↓

고전 13:4

↓

약 4:6

↓

벧전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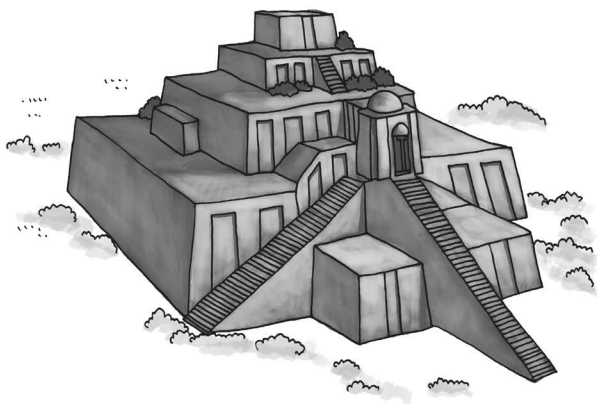
지구라트

성경에 기록된 바벨탑과 비슷한 유형의 탑으로 추정되는 탑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20여 개나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하늘의 언덕’이란 뜻입니다. 지구라트는 7층으로 된 계단식 탑으로 그 크기가 큰 것은 아랫변이 122m, 높이는 46.7m 가량이나 됩니다. 바깥쪽은 벽돌과 역청으로 만들었고 안쪽은 진흙을 쌓았습니다. 각 층은 다른 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그 각각은 당시 알려진 일곱 행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는 분명히 점성술이나 하늘승배의 목적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벨탑에 대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창 11:4)라고 기록하였는데, 지구라트와 그 의미가 통합니다. 더욱이 고대 바벨론의 한 서판에는 지구라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지구라트의 건설로 하늘의 모든 신들이 분노하였다. 그래서 어느 날 밤 한 신이 내려와 이들의 작업을 방해하였다. 결국 이 건설 작업은 중단되었고, 인간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채 흩어졌다.’

이로 보건대 바벨탑도 이런 지구라트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생각되고 후대로 가면서 지구라트의 규모가 작아졌지만 초기의 지구라트는 거대한 규모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창 11:3~4).



질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를 배척하고 로마인의 손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일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워 죽게 만드는 일보다 더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배척한 데는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를 통해 우리는 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의 화려했던 시절을 뒤로 하고 바벨론, 메대 파사, 헬라, 그리고 로마 등의 여러 나라에 의해 계속적인 지배를 받고 있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만 오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지구상에 왕국을 건설해줄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집착하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죄와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자세히 예언된 말씀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거나 그들의 육신적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그 영혼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영혼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이적을 지켜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천여 명에게 떡을 만들어 먹이는 이적을 보이자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며 예수님을 붙잡아 억지로 임금을 삼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다는 것은 곧 로마를 향한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피해 산으로 가셨습니다(요 6:15). 이렇게 예수님이 정치적인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시고, 왕이 되지도 않으시자 실망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히려 미워하고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요 5:38)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고전 2:8)

또, 눈앞에 있는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문제의 해결에 집착함으로 인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순종 대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이라는 인간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심판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 믿음으로 제사 드린 아벨

아담의 범죄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들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 심판을 대비한 노아

노아는 방주를 통해 이 세상의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닌 구원을 함께 약속합니다.

●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는 날

홍수 심판이 지나고 이제 세상은 불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처럼 불 심판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심판 전에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바벨탑

노아 홍수 이후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떠날 뿐 아니라 바벨탑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언어의 혼잡이 생겨 각 민족은 흩어지게 됩니다. 외국어의 발생이 바로 바벨탑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정리 활동



다음 활동 중에서 선택하여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 봅시다.

마인드맵 / 성경 속 인물에게 보내는 편지 / 단원 내용을 활용한 전도 편지
신문 기사 / 등장 인물의 일기 / 티셔츠 디자인 / 4컷 만화 / 캘리그래피
광고 / 포스터 / 성경 퀴즈 만들기 / 낱말 퍼즐 만들기